

나주시 인재육성기금 106억 '든든하네'

고교·대학 신입생 71명에 장학금 1억4890만원 지급 대학 우수 신입생 450% 증가 등 지역인재 양성 효과

나주시가 출연해 설립한 (재)나주교육진흥재단의 인재육성기금이 14년 만에 106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성적 우수 고교 신입생 56명과 대학 신입생 15명 등 총 71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1억4890만원을 지급했다.

성적 우수 고교 신입생 장학금은 나주시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중학교 내신 성적 기준 1등급(1%이내) 학생은 400만원, 2등급(3%이내) 320만 원, 3등급(5%이내) 240만원, 4등급(7%이내) 160만원, 5등급(10%이내)은 8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대학 우수 신입생 장학금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신입생을 비롯해 의과학계, 의학전공대, 로스쿨, 카이스트, 포항공대 입

학생을 대상으로 250만원을 지급했다.

지역 소재 대학인 동신대 추천 신입생 4명과 아동양육시설 거주 학생 중 대학 신입생에게도 각각 12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올해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나주시의 지역인재 육성 시책에 힘입어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명에 불과했던 대학 우수 신입생은 450% 증가했다. 재단은 올해 서울대 1명, 연세대 2명, 고려대 3명, 의예과 1명, 카이스트 2명 등 총 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재단은 최근까지 총 4485명의 학생에게 44억39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단이 보유한 인재육성기금도 106억 7400여 만원에 이를 정도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나주교육진흥재단은 최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성적 우수 고교 신입생과 대학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은 성적 우수 신입생 장학금 지원 외에도 민선 7기 공약실천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 중·고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무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나주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인 강인규 나

주시장은 "앞으로도 초·중·고 방과 후 학습을 비롯해 해외 어학연수, 외국어 캠프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입학례를 계승한 형식으로 치러진 남평중학교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제자가 공자님에게 수업료로 비단 한필과 술 한병, 육포를 올렸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속수례(束修禮)' 의식을 하고 있다. (남평중학교 제공)

남평중학교 독특한 전통 입학식 '화제'

스승과 제자 특별한 상견례

나주시 남평읍 남평중학교(다도분교장 포함)에 독특한 전통 입학식이 열려 화제다.

남평중학교와 다도분교장은 지난 4일 조선시대 왕세자의 입학례를 계승한 '2019 입학 청원과 승인식'을 가졌다.

입학례는 조선시대 왕위계승자인 왕세자가 성균관에서 충·효·예를 스승에게 행하고 학생의 신분으로써 스승에게 배움을 청하는 의식이다.

이날 입학례는 한국자문화원의 순천지회(김영애)가 후원하고 나주향교 및 남평향교의 협찬을 받아 남평중학교 학생자치회와 다누리 동아리가 주관했다.

입학식에서 67명의 신입생들은 세수(洗手) 의식→청원서(請願書) 낭송→입학 승인→속수례(束修禮) 의식 및 진다례, 신입생과 재학생 상견례 등 입학례를 진행했다.

입학례에서 신입생들은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3번의 배움을 간청하고 학교장의 입학 승인을 받았다. 또 신입생들은 제자가 공자님에게 수업료로 비단 한필, 술 한병, 육포를 올렸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속수례 의식을 치렀다.

신입생들은 속수례 의식에서 비단과

술 대신 3년 동안 바른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랑의 회초리와 학생들이 직접 우려낸 맑고 향기로운 차 한잔을 스승님께 올렸다.

이날 입학 승인서를 받은 입학생들은 3년 동안 ▲교과연계 차예절교육 ▲전국 차예절경연대회 참가 ▲스승의 날 진다례 ▲학생·학부모·교직원별로 문화와 소통의 Tea-Party 등 '차상머리 인성교육'을 받게 된다.

변정빈 남평중학교 교장은 "우리 학교의 입학례와 세책례는 지역사회의 인프라인 나주향교와 남평향교를 교육 활동에 접목한 사례"라며 "맛있는 스승과 제자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스승과 제자의 위상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직원 전체의 정성을 담아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입학생 송현민군은 "오늘 행사를 통해 저 자신이 엄청 소중하게 느껴지고 남평중학교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남평중학교는 지난달 14일 세책례와 진다례를 테마로 한 졸업식을 치렀다. 남평중(다도분교장 포함)학교의 특별한 입학식과 졸업식은 지난 5일 EBS의 '행복한 교육 세상'에 소개됐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남평 월현대산 근린공원 조성 마무리

나주 남평 월현대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됐다. <사진>

나주시는 남평 강변도시 조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남평 월현대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산림청 산림공원 조성사업과 문화부 인공폭포 조성사업으로 총 20억원(국비 11억원, 시비 9억원)을 투입, 남평 강변도시 개발사업 준공 시기 도래로 인한 녹색 공간 수요 충족을 위해 남평읍 교촌리 1-6번지 일원 남평 월현대산 근린공원 조성에 착수했다.

총 면적 6만6142㎡의 월현대산 근린공원은 인공폭포, 초화원, 잔디광장, 어울마당, 야외무대, 배롱나무길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테마의 산책코스가 마련됐다.

소나무, 푸조나무, 자산홍, 핑크몰리 등 4만 9000여주의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 천혜의 자연 경관에 걸 맞는 경관을 조성했다. 또 산책로에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야간시간대 이용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공원 내 방범용 CCTV와 유지관리 인력을 충원,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데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월현대산 근린공원은 남평 강변도시의 랜드마크"라며 "산책 및 유희 공간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및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31일까지 나주독립운동사 발자취 특별전

나주시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지역출신 독립운동가에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

나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나주나빌레라 문화센터(나나센터)에서 3·1운동 100주년과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기념해 '나주, 독립의 얼'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전은 지난 2015년 나주시가 발간한 '나주독립운동사'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나주에서 발발한 독립운동의 전체적 흐름을 쉽고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나나센터 2층 다목적실 1실에서는 '구한말 국군운동과 3.1운동 100년 물결'이라는 주제로 나주 항일의병운동 및 3·1운동, 국

외에서 활동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한다.

또 2실에서는 1920년대부터 해방까지 나주 지역에서 있었던 다양한 독립운동사와 더불어,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당시 유물과 기록들을 실물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전시회는 광주학생운동 발발의 계기가 된 사건인 나주역 땀겨머리 사건의 당사자 박준재 독립운동가가 지은 시(1929년 12월31일 지음)도 최초 공개한다.

전시전관 관련 문서는 나주시청 문화예술과(061-339-4632) 또는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061-334-5393)으로 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복숭아 전문가 과정' 친환경농업대학 참여자 모집

나주시는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친환경농업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나주시는 7일 '복숭아 전문가 과정'으로 친환경농업대학 12기 수강생 30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시 친환경농업대학은 15일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24회에 걸쳐(100시간 이상) 진행될 예정이며, 70% 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을 증명한다.

모집은 이달 6일부터 11일까지이며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1-339-7421)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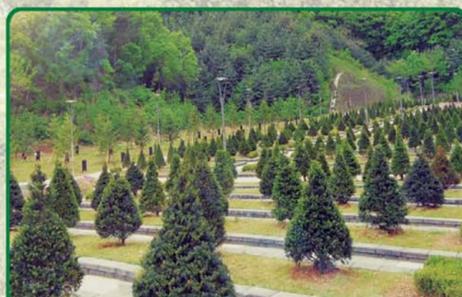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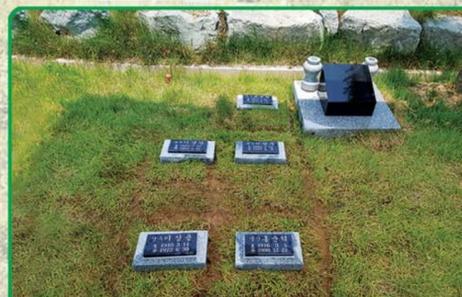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 자연장의 장점 ●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덤피아 1011호

☎ (062) 372-7878